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효과\*  
-장기요양재가서비스 이용자를 돌보는 가족부양자를 중심으로-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Resources on Caregiving Burden and Life  
Satisfaction of Family Caregivers Performing Long-Term Care of the Elderly:  
A Focus on Using Home Care Services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 교수 박주희\*\*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Associate Professor Park, Ju-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선행 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resources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caregiving burden of family caregivers taking care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service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among the family caregivers utilizing 30 home care centers in Seoul, Korea. Of the candidate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250 caregivers who had supported the elderly at home for at least 6 months were selected.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SPSS ver. 21.0. The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whole family caregivers' caregiving burden of family caregivers was found to be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More specifically, the physical burden was the heaviest, followed by the family relationship burden, the social activity burden, the emotional burden, and the financial burden. Social support resources and life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a little bit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Second, the variables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life satisfaction, starting with the strongest

\* 이 논문은 2017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박주희(pjh@sungshin.ac.kr)

effect, were a lower psycho emotional burden, greater informational support resources, a lower economical burden, greater emotional support, a younger caregiver age, a higher monthly income, and a shorter care period. Third, informational support resources were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ort burden and life satisfaction. The more the participants used the informational support resource subcategory of the social support resources, the narrower the life satisfaction decrease, even though the caregivers felt a support burden. Informational support resources appear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buffering effect.

Keywords: 장기요양노인(elderly in long-term care service), 가족부양자(family caregivers), 부양부담(caregiving burden), 사회적 지지자원(social support resource),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 I. 서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치매, 중풍, 외상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수 또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가족의 노인 부양과 간병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한편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이동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노인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개입이 한층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공적제도로 도입하여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부양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가족의 부양부담과 그에 수반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이다. 특히 유교문화권에서의 가족주의 의식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요보호 노인의 부양에 따른 부담감을 가족이 더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공적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이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 시대적으로 부양규범이 약화되는 것에 반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부양에 대한 요구가 커져 가족부양자가 느끼는 부양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Tsutsui, Muramatsu & Higashino, 2014).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가족의 돌봄의 어려움과 이들 가족의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차원의 지속적 관심이 요청된다. 또한 요보호 노인들의 대다수가 여전히 가정 내에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 65세 이상들 중 신체적 기능 저하자 중 81.7%가 수발을 받고 있으며, 이 중 91.9%가 가족수발을 받고 있다(정경희 외, 2014). 관련 연구들은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는 일은 대개 가정에서 가족부양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윤경아, 2017; 김철주·홍성대, 2007; Tsutsui et al., 2014). 이에 따른 가족원의 부양부담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그들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가족부양자들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한숙정·이세운·김지연·김홍수, 2014; Pinquart & Sorensen, 2003; Papastavrou et al. 2011). 특히 재가급여 이용 가족의 경우 시설급여 이용 가족과 달리 요보호 노인을 공적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해도 서비스 제공 시간 이후에 가족 돌봄을 제공해야 하고 그

에 따른 돌봄자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반면 또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부양 수혜자와의 관계향상, 만족감, 자신의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생애주기적 발달상의 어려움 또는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 등 부양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보상을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Pinquant & Sorensen, 2003). 이와 같이 모든 부양자의 부양경험이 동일하지 않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으며(전혜정·조규영, 2011), 부양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양자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예측 요인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제안한 Pearlin et al.(1990)에 따르면, 부양부담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은 가족부양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돌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영향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장하였다. 사회적지지 자원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들에서만(정경일, 2014; 조주연, 2015; 조해진, 2002) 제한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요보호 노인 연구에서도 부양에 대한 부정적 측면인 부양 스트레스(백용운·최수일, 2010)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부양의 긍정적 측면, 즉 부양자의 생활만족도 증진에 사회적지지 자원의 효과에 초점을 둔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개념간의 단순 상관관계나 생활만족도나 부양부담의 영향요인을 각기 조사했을 뿐 부양부담이나 생활만족에 완충효과를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의 증진은 요보호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정경일, 2014), 부양자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부양자뿐 아니라 요보호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보호 노인의 시설입소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요보호 노인을 장기간 요양시설에서 보호함에 따른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장기요양보호정책이 요보호 노인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가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향후 효율적 적용을 위한 포괄적 논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부양자가 느끼는 부양부담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주목한 체계적 실증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하위 요인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더 광범위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부양자들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실천적·정책적 개입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 사회적 지지 자원, 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 자원은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장기요양노인 및 가족부양자 특성

최근 우리사회의 노인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인구도 급격히 늘어나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 노인부양체계인 가족 내에서의 노인 돌봄 의식이나 실태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의적으로 국가 및 사회가 함께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바탕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현황을 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은 672만 명으로 2008년 대비 32.1%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78만 9천명으로 109.8%, 인정자는 46만 8천명으로 118.1% 증가율을 보였다. 장기요양등급 현황을 보면(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2015년 12월 현재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6만 8천여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7,921명, 2등급 71,260명, 3등급 176,336명, 4등급 162,763명, 5등급 19,47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인정자 중 재가계약자는 409,212명이며 이중 재가 이용자는 264,507명으로 전체의 64.6%, 시설이용자는 144,705명으로 전체의 35.4%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형태는 주부양자 및 피부양자 노인의 특성에 따라 대다수의 가족이 재가서비스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재가서비스이용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돌봄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원 중 한 명이 위계적 위치의 사회적 규범을 따라 주돌봄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주영, 2007). 즉 의무에 대한 위계적 책임을 따를 때, 일차적 돌봄자는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성인 자녀들이 그 다음으로 주돌봄자가 된다. 장혜경 외(2006)의 조사에서는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 37.1%, 며느리 33.8%, 자녀가 25%로 배우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선우덕 외(2015)의 연구에서 장기요양 인정

자의 주돌봄자 유형을 보면 돌봄자가 없는 독거상태가 5.6%이고, 그 이외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돌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유형에서 며느리, 사위를 포함한 자녀가 37.7%로 가장 높고, 배우자 22.3%, 간병인(요양보호사 포함 일반 간병인) 13.8%, 친척 또는 이웃이 1.4%, 손자녀가 0.8%, 자원봉사자가 0.2%, 기타가 16.4%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주돌봄자 이고, 자녀가 돌볼 여건이 안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주돌봄자로 나타났다.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기능상태가 중증이기 때문에 가족 내 돌봄의 비중이 적고,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간병인과 같은 공식 돌봄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선우 덕 외, 2015). 최근에는 부양자 역할을 주로 담당했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핵가족화에 따라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 1인 가구와 노인 부부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자녀 동거가구는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6). 정경희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기능 저하자 중 81.7%가 수발을 받고 있으며, 이 중 91.9%가 가족수발을 받고 있고 또한 수발을 받고 있는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서비스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혜·이서연(2009)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부양자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부부관계의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녀 부양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부양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우리사회의 가족형태가 노인 부부가구의 증가와 부모자녀 동거가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족 부양자의 상당수가 배우자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가족부양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노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재가서비스 이용 시간 외에 노인에게 경제적·정서적·신체적 부양을 주로 수행하는 자를 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

부양(扶養)이란 정서적 지원과 필요한 자원을 개인에게 제공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하여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것을 의미한다(김해란, 2011). 부양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조추용(2004)은 부양을 의존적 욕구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였으며 김명자와 손서희(2005)는 부양이란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을 위한 필요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부양의 개념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의존적 특성이 높은 장기요양노인의 부양은 부양자로 하여금 매우 큰 부담을 갖게 한다. 부양부담(Caregiving Burden)과 혼용되고 있는 용어로는 부양스트레스(Caregiver Stress), 고통(Distress) 또는 부양의 영향 혹은 결과, 일상적 부양과업, 수행상의 애로(Hassles), 긴장(Strain) 등이 있다(김양이, 2000).

부양부담감에 관한 선행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Zarit et al(1986)은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가 질병을 갖게 되는 경우, 돌보는 가족이 환자의 행동이나 상태변화와 같은 상황 및 사건과 관련되어 경험하게 되는 정서·신체·사회 및 재정적 어려움과 불편감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Novak & Guest(1989)는 노부모부양에 따른 스트레스를 시간적 부담, 발달상의 부담, 신체적 부담, 사회적 부담, 정서적 부담으로 정의하였다. Cantor(1983)는 부양부담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여 부양부담을 부양자의 주관적 감정으로 부양 경험에 대한 태도나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하였다. Given & Given은(1992)은 부양부담을 노인가족구성원을 돌보는 결과로 발생하는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의 문제라고 정의하였다. 이해자(2006)는 부양부담을 노인 주부양자들이 부양과업 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정서적·사회활동적·재정적 문제와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부양부담을 다차

원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부양부담은 가족부양자가 노인을 주로 부양하면서 겪게 되는 부양에 대한 다차원적인 부정적인 정서로서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크게 신체적·심리정서적·사회활동적·재정적 부담·가족관계부담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백용운·최수일(2010)의 연구에서는 주부양자는 주로 여성일 경우 40대가 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루에 5시간 정도 노인을 돌보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실시 전과 비교하여 가족 부양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제한적 스트레스(54.9%)가 가장 많이 줄었고, 신체적 스트레스(22.3%), 경제적 스트레스(14.3%) 순으로 부양스트레스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혜·이서연(2009)의 연구에서는 남성부양자에 비하여 여성부양자의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희정(2011)은 노부모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부양자의 경우에는 주부양자의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부양비 부담감이 높을수록, 피부양자와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지 않을수록, 부양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홍숙자(2010)의 연구에서는 노부모의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은 신체적 부양부담이 가장 높았고, 심리정서적 부양부담, 경제적 부양부담, 사회활동적 부양부담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김미경·박다혜·안옥희(2014)는 노인 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수발자를 분석한 결과 주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은 신체적 부양부담감이 가장 높고, 배우자인 경우, 수입이 적고 여자인 경우 부담감이 높다. 부양부담에 영향 요인과 관련해서는 1일 간병시간이 영향을 미쳤다.

### 3. 가족부양자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부양부담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 (1) 생활만족도의 개념

생활만족도를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수용하고, 주위 환경과 변화에 효율적으로 잘 적응하여 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다(정혜정, 김태현, 이동숙, 2000). 최성재(1986)는 생활만족도의 측정도 관련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차원에서 삶에 대한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를 포함하였다. 또한 행복한 삶에 대한 만족정도는 생활만족도란 개념 외에 삶의 만족도, 행복감, 적응 등의 개념들과 혼용되기도 한다. 생활만족도는 삶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돌봄과 관련한 부양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tuckey, Neundorfer & Smyth, 1996). 이상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생활만족도는 부양자들이 경험하면서 느끼는 정서로써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나 환경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전체적인 만족감의 감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부양부담과 생활만족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부양부담이 가중되면 신체적인 문제는 물론 생의 의욕 상실, 생활만족감의 상실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의 저하를 가져오고(김진선·이은현, 2001), 부양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의 결과로 나타났다(Caitlin, Holly & Benjamin, 2009). 주경복(2009)의 연구에서는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감이 높을수록 소진감은 높아지고, 부양부담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며, 소진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영인(2008)은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부양부담의 하위요인으로 건강문제, 사회적 활동 제한, 심리적 문제, 경제활동상의 문제, 가족관계의 변화 모든 요인에서 부양부담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영·김진선·윤현숙(2004)의 연구에서는 노인부양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변화된다고 하였으며, Haley et al.(1995)의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중 그 시간이 길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생활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조규영(2011)은 가족성원이 부양자의 역할로 전이된 이후 비부양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배우자 부양자로 전이한 경우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요보호 노인의 부양부담은 주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2) 부양부담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자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지지는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시켜줌으로서 고립을 막아주며,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교제 및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비상시에 후원자로 역할을 하며, 사회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초기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Bames(1954)가 가족 관계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며 Cassel et al.(1976)이 사회적 지지와 건강과의 관계를 발표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관심받기 시작하였다(조주연, 2015, p.15에서 재인용). Aneshensel & Stone(1982)은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적응력이 강화되는 반면, 사회적 지지 자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응력이 손상되어 우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 자원이 신체적,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자원은 일반적으로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이처럼 사회적 지지 자원(social support resources)은 환경적인 변인의 하나로서, 1970년대 중반부터 일상생활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널리 입증되어 왔다(Cohen & Wills, 1985).

국내의 경우에도 다양한 응용학문 분야에서 꾸준히 학문적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다(성규탁, 1991; 이영자·김태현, 1999; 이익섭·윤경아, 2001; 배진희, 2004; 엄태완, 2007; 조주연, 2015; 윤경아, 2016). 이상의 연구들은 외국의 사회적 지지 연구 패러다임을 따라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나 완충 가설(buffering hypothesis) 하에 조절 또는 매개변수로 놓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김재우, 2015). 사회적 지지자원 영향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자원은 사회적 후원의 기초가 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Toseland, Rossiter & Labrecque (1989)는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의 집단 지지활동을 통한 사회적 교제 기회가 가족 부양자의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켜, 가족 부양자의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윤정·최혜경(1993)은 치매노인 부양자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부양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부양만족감을 중재하는 조절변인(moderator)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이주원·이준영(2015)의 연구에서도 치매노인의 일상생활수행기능장애 심할수록 부양부담이 가중되었지만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가족부양자들이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이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 3)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가족부양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각 부양가정의 가계수입이 낮을수록 부양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이행송·송라운, 1999; Schulz & Williamson, 1991). 윤현숙 외(2000)의 연구에서는 노부모의 기능상태가 악화되거나 악화상태가 장기화되면 노인의 손상된 기능 정도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만성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신미숙·김경신(2013)의 연구에서도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이 낮고, 월수입이 많은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승돈·김용환(2009)의 연구에서는 노부모를 돌보는 시간, 가족 수입에 따라 부양자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 돌보는 시간이 길수록, 수입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Moen(1995)도 부양의 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피부양자 특성과 관련해서 김수영(2008)은 배우자가 주부양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고령인 경우가 많아 체력부담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어려움도 많아지게 되고, 심리적 안정감은 다른 관계의 부양자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 영향 변인으로 노인 기능상태 정도를 반영한 장기요양등급, 노인의 연령, 노인과의 관계, 월소득, 가족부양자 연령, 돌봄 기간, 일일 돌봄시간으로 구성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서울시에 소재한 재가방문요양센터 30곳을

유의표집으로 선정하여 연구대상자를 표집하였으며 성북구 6개 기관 48명, 강북구 8개 기관 56명, 서대문구 8개 기관 45명, 양천구 10개 기관 82명, 관악구 5개 기관 32명, 노원구 3개 기관 37명의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 목적에 맞는 표본을 표출하기 위해 비 확률표집 방법인 편의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재가방문 요양센터를 방문하여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동의하는 연구대상자들 중 가정에서 6개월 이상 노인을 부양해오고 있는 300명의 재가급여 이용 가족부양자를 연구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대해 사전에 훈련받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수학하고 있는 대학원생들로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이 설문조사를 하였다. 2017년 1월 9일부터 부터 2017년 1월 2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개의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오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0개의 질문지를 제외한 250부를 최종분석으로 사용 하였다.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 1)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가족부양자 생활만족척도는 조해진(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역점수는 1번 문항부터 13번 문항까지로 역코딩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각 문항을 보면, '내 생활의 무언을 하든지 무력감을 느낀다', '우울하다', '불안하여 침착할 수 없다', '나는 가끔씩 운다', '내 처지는 절망적인 것 같다', '해야 할 일을 시작하는데 힘이 든다', '나는 즐겁게 지낼 가치가 없는 사람 같다', '나는 쉽게 당황해 한다', '낙담한 심정이다', '나는 성급하다', '짓눌린 것 같이 느낀다', '나는 쉽게 긴장을 푼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

한다', '내가 의사 결정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필요로 여김을 느낀다', '나의 미래는 밝다고 느낀다', '일이 어려워질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있는 것 같다', '나는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정말 내게 신경 쓰는 것 같다', '나는 매우 즐겁다', '활동적이고 바빠 움직이는 것을 좋아 한다',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은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 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로 높게 나타났다.

### 2) 독립변수: 부양부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양부담 척도는 이해자(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부양자가 노인을 부양하면서 경험하는 부정적 영향으로서의 부양부담이며 이러한 부양부담은 신체적 부담, 심리정서적 부담, 재정적 부담, 사회활동적 부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등 다섯 가지 세부적인 하위 부양부담 유형으로 총 15개 항목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하위 영역별 내용을 보면 먼저 신체적 부양부담은 '어르신에 의해 몸이 자주 지치고 피곤하다', '어르신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부양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낀다'의 3문항, 사회활동적 부담은 '어르신 부양으로 인해 직업을 갖지 못한다', '어르신 때문에 마음 놓고 외출을 할 수가 없다', '취미나 모임을 등의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없다'의 3문항, 심리정서적 부담은 '어르신을 돌보는 일에 화가 나며 그 때문에 우울하다', '자신이 소진되어 버렸다는 느낌이 든다', '어르신 부양이 나에게 올라미가 된 느낌이다'의 3문항, 가족관계부담은 '부양으로 인해 가족, 친척,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긴다',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진다', '모시는 노인과의 사이가 나빠진다'의 3문항, 경제적 부담은 '치료 간병비

때문에 다른 곳에 생활비를 쓰기가 부족하다', '어르신의 간호와 치료에 드는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크다', '어르신을 부양하느라 소득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가계소득이 감소하였다'의 3문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부담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양부담의 전체 신뢰도는 .88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인 신체적 부담은 Cronbach's  $\alpha = .78$ , 경제적 부담은 Cronbach's  $\alpha = .88$ , 정서적 부담 Cronbach's  $\alpha = .71$ , 사회활동적 부담 Cronbach's  $\alpha = .90$ , 가족관계적 부담 Cronbach's  $\alpha = .70$ 으로 모두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 3) 조절변수: 사회적지지 자원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자원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을 공식적 지지와 가족, 친척, 친구 등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공식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박지원(1993)이 개발한 사회적 척도를 수정 사용한 조해진(200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지지를 말하며, 사랑, 공감적 경청, 신뢰, 관심, 격려, 이해 등에 관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2$ 로 나타났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 등에 관한 6문항으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다. 물질적 지지는 필요시에 제공되는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에 대한 6문항으로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항 내용을 보면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

고 생각 한다',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준다고 생각 한다',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할 것이다',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 줄 것이다', '내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준다고 생각 한다',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고 생각 한다', '대체로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울 것이다',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고 생각 한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본인이 소유한 것을 빌려줄 것이다', '내가 요청할 때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줄 것이다', '내가 몸져 누웠을 때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 4) 통제변수: 가족부양자 및 피부양자 노인 특성

가족부양자의 특성으로 연령, 월소득, 피부양노인과의 관계, 부양기간, 일일 돌봄 시간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피부양자 노인의 특성으로 연령, 장기요양등급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피부양노인과의 관계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는 연속변수로 처리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측정도구 구성 및 신뢰도

변인		Cronbach's $\alpha$
부양 부담	신체적부담	.79
	경제적부담	.83
	심리정서적부담	.72
	사회활동부담	.91
	가족관계부담	.70
	전체부양부담	.88
사회적 지지 자원	정서적지지	.82
	정보적지지	.92
	물질적지지	.90
	전체 사회적지지	.95
생활만족도		.88
통제 변인	가족부양자 연령, 피양부노인과의 관계, 월소득, 돌봄기간, 일일돌봄시간, 노인연령, 장기요양등급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1.0프로 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적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일반적 특성, 부양부담, 사회적지지 자원,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산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양부담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사회지지 자원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표 2>, 가족부양자와 노인과의 관계는 아내 45.9%, 며느리 44.2%, 딸 9.2%, 아들 4.0%, 남편 0.8%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부양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부양자의 연령은 50대가 67.2%, 60대가 24.8%였으며 70대 이상의 경우도 8.0%로 나타났다. 가족부양자의 평균연령은 56.4세로 중고령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401만원~600만원 구간이 43.0%, 201만원~400만원 구간이 37.3%, 200만원 이하 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수준은 약 391만원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노인의 하루 돌봄 시간은 2시간 미만이 36.5%, 4시간 미만이 22.1%, 4시간 이상이 41.4%로 나타났다. 돌봄 기간은 5년 이하가 59.7%, 6~10년 이하 25.0%, 11년 이상이 15.3%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노인의 성별은 남자 노인이 47.2%, 여자 노인이 52.8%로 여자노인이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연령의 경우 80대가 81.7%, 90대 이상이 9.6%, 70대 이하는 8.8%의 순이었으며 피부양자 평균연령은 84.7세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등급은 3등급이 78.0%로 가장 많았으며 5등급 8.1%, 4등급 6.2%, 2등급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노인의 결혼형태를 보면 현재 혼자인 상태가 25.4%였으며 배우자가 있다가 74.6%로 나타났다.

〈표 2〉 가족부양자 및 피부양자노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	%	구분	내용	빈도	%	
가족 부양 자	피부 양노 인과의 관계	아내	110	45.9	피부양자 노인	성별	남	118	47.2
		며느리	106	44.2			여	132	52.8
		딸	22	9.2		합계	250	100.0	
		아들	10	4.0		연령	70대	21	8.8
		남편	2	0.8			80대	196	81.7
	합계	250	100.0	90대이상		23	9.6		
	연령	50대	168	67.2		합계	250	100.0	
		60대	62	24.8		장기 요양 등급	2등급	19	7.7
	70대이상	20	8.0	3등급			192	78.0	
	평균: 약 56.4세	합계	250	100.0		4등급	15	6.2	
	월소득	200만원이하	36	14.5		5등급	20	8.1	
		400만원이하	93	37.3		합계	246	100.0	
600만원이하	107	43.0	결혼 형태	독거	61	25.4			
601만원이상	13	5.2		유배우자	179	74.6			
평균:약 391만원	합계	249	100.0	합계	240	100.0			
하루 돌봄 시간	2시간미만	91	36.5	돌봄 기간	5년이하	148	59.7		
	4시간미만	55	22.1		10년이하	62	25.0		
4시간이상	103	41.4	11년이상	38	15.3				
합계	249	100.0	평균: 약 5.5년	합계	248	100.0			

2.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 사회적 지지 자원, 생활만족도의 수준

가족부양자의 노인에 대한 전체부양부담은 3.43(SD=.45)으로 중간값 3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부담이 3.60(SD=.69)로 가장 높게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가족관계부담 3.56(SD=.65), 사

회활동부담 3.51(SD=.57), 정서적부담 3.49(SD=.60), 경제적부담 3.04(SD=.73)의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부양자의 노인에 대한 전체 부양부담은 3.43(SD=.45)로 중앙값 3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자원은 3.24(SD=.91)점으로 중간값 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 정서적지지 3.14(SD=.68), 정보적지지 3.20(SD=.79), 물질적지지 3.38(SD=.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3.22(SD=.93)으로 나타났다.

〈표 3〉 부양부담, 사회적지지 자원, 생활만족도

		M	SD	최소값	최대값
부양 부담	신체적부담	3.60	.69	1.00	5.00
	가족관계부담	3.56	.65	1.00	5.00
	사회활동부담	3.51	.57	1.00	5.00
	정서적부담	3.49	.60	1.00	5.00
	경제적부담	3.04	.73	1.00	5.00
	전체부양부담	3.43	.45	1.00	5.00
사회적 지지	정서적지지	3.14	.68	1.00	5.00
	정보적지지	3.20	.79	1.00	5.00
	물질적지지	3.38	.61	1.00	5.00
	전체사회적지지	3.24	.60	1.00	5.00
생활만족도		3.22	.93	1.00	5.00

### 3.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피부양자 노인의 연령, 요양등급, 부양자와의 관계, 부양자 연령, 돌봄기간, 돌봄시간, 월소득과 부양부담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부담, 사회활동부담, 경제적 부담, 심리정서적 부담, 가족관계부담을, 사회적지지 자원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를 투입하였다. 이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부양자 부양부담의 하위 요인들과 사회적 지지 자원의 하위 요인들은 부적 상관관계를, 생활만족도와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 자원의 하위 요인들은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가족부양자의 노인에 대한 신체적 부양부담, 사회활동 부담, 경제적 부담, 심리정서적 부담, 가족관계 부담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부양자의 노인에 대한 신체적

부양부담, 사회활동 부담, 경제적 부담, 심리정서적 부담, 가족관계 부담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사회적지지의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Pearson의 r 값이 .80을 넘는 상관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노인에 대한 심리정서적 부담, 정보적 지지, 경제적 부담, 정서적지지, 부양자 연령, 월소득, 돌봄 기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56.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18.61, p<.001$ ). 즉 가족부양자의 노인에 대한 심리정서적 부담이 낮을수록, 정보적 지지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낮을수록,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양자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돌봄기간이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 4. 부양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양자가 지각한 부모의 부양부담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각각의 사회적 지지자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는 회귀분석 상에서 종속변수 외의 변수가 가지는 상호작용 항의 유의성에 근거하여 완충효과를 나타내는 모델로,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가 제 3의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성태제, 2011). 본 연구에서 변수들이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위계적 회귀분석에 따라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다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 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을

〈표 4〉 변인들 간 상관관계

	신체적 부담	사회활동부담	경제적 부담	심리정서부담	가족관계부담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생활만족
신체적부담	1								
사회활동부담	.53**	1							
경제적부담	.29**	.54**	1						
심리정서적부담	.50**	.72**	.27**	1					
가족관계부담	.29**	.59**	.43**	.70**	1				
정서적지지	-.33**	-.29**	-.42*	-.32*	-.29**	1			
정보적지지	-.33**	-.47**	-.41**	-.49**	-.22**	.59**	1		
물질적지지	-.23**	-.60*	-.21**	-.39**	-.12*	.71**	.67**	1	
생활만족	-.34**	-.56**	-.27**	-.47**	-.48**	.29**	.35**	.21**	1

\*p<.05, \*\*p<.01

〈표 5〉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beta$	공차	VIF
(상수)	7.140			
노인연령	-.008	-.035	.455	2.196
장기요양등급	-.001	-.001	.594	1.683
부양자와의 관계	.821	.117	.557	1.796
가족부양자연령	-.034	-.166**	.647	1.545
돌봄기간	-.022	-.127*	.379	2.638
돌보는시간	.000	.058	.443	2.257
월소득	.001	.163*	.529	1.891
신체적부담	.018	.013	.394	2.537
사회활동부담	-.194	-.115	.181	5.519
심리정서부담	-.758	-.622***	.186	5.377
가족관계부담	.046	.034	.442	2.263
경제적부담	-.467	-.290***	.623	1.604
정서적 지지	.343	.281**	.182	5.495
정보적 지지	.409	.335***	.298	3.358
물질적 지지	.046	.038	.212	4.716
adj. R <sup>2</sup>			.562	
F			18.61***	

\*p<.05, \*\*p<.01, \*\*\*p<.001

검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기 전의 회귀분석 결과와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후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때, 독립변수와 상호작용 항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과 생활만족도

〈표 6〉 부양부담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 자원의 조절효과

	1단계				2단계			
	b	$\beta$	공차	VIF	b	$\beta$	공차	VIF
(상수)	7.045				6.142			
부양부담	-1.090	-.485***	.503	1.986	-.797	-.355***	.365	2.736
정서적지지자원	.385	.308**	.312	3.204	.355	.284**	.294	3.402
정보적지지자원	.490	.391***	.481	2.078	.547	.437***	.427	2.340
물질적지지자원	.051	.042	.477	2.096	.125	.104	.451	2.217
부양부담 X 정서적지지 자원					.272	.109	.179	5.578
부양부담 X 정보적 지지자원					1.355	.448***	.239	4.190
부양부담 X 물질적 지지자원					.745	.170	.192	5.215
adj. R <sup>2</sup>	.301				.344			
R <sup>2</sup> change	-				.043			
F	26.01***				18.37***			

\*p<.05, \*\*p<.01, \*\*\*p<.001

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자원의 모형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과 사회적지지 자원의 하위 요인들을 투입한 모형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30.1%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 자원의 하위 요인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2단계의 설명력은 34.4%로 R<sup>2</sup>변화량이 유의수준 하에서 증가하였으므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단계에서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 정서적지지, 정보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2단계에서 사회적지지 중 정보적 지지 자원과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부양자의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정보적 지지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 따라서 가족부양자의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경험하여도 정보적 지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beta=.45, p<.001$ ) 생활만족도의 감소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보적 지지자원이 완충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중 정보적 지지 자원은 노인에 대한 부

양부담을 지각한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완충효과를 나타냈다. 즉,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지각한 가족부양자일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하지만 정보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의 감소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가 지각한 부양부담과 사회적 지지자원이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가족부양자의 사회적 지지자원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지역 재가방문요양센터를 30곳을 임의표출로 추출하여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동의하는 연구대상자들 중 가정에서 6개월 이상 노인을 부양해오고 있는 300명의 재가급여이용 가족부양자를 연구대상으로 임의 표본추출 하여(convenient sampling)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250명을 조사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부양자의 노인에 대한 전체부양부담은 3.43(SD=.45)으로 중간값 3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가족부양자의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부담이 3.60(SD=.69)로 가장 높게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가족관계부담 3.56(SD=.65), 사회활동부담 3.51(SD=.57), 정서적부담 3.49(SD=.60), 경제적부담 3.04(SD=.73)의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부양부담은 3.43(SD=.45)로 중앙값 3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자원은 3.24(SD=.91)점으로 중간값 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3.22(SD=.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 수준을 보면, 가족부양자의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은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어 공적요양서비스의 제한적 이용이 결과적으로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을 크게 완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하위 영역별로 신체적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홍숙자(2010), 이창주(2011)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재가급여 이용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는 중간값 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내 재가급여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생활만족도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부양자들이 사회경제적 특성이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둘째,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심리정서적 부담, 정보적 지지, 경제적 부담, 정서적지지, 부양자 연령, 월소득, 돌봄기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56.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노인에 대한 심리정서적 부담이 낮을수록, 정보적 지지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낮을수록,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양자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돌봄 기간이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 변인은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 중 심리정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부양자들이 장기요양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이 매우 크며 따라서 이들의 부정적 감정을 적절하게 치유할 수 있는 개입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부양부담과 생활만족도와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의 설명력은 30.1%였고 1단계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한 변수는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2단계의 설명력은 34.4%로 설명력이 4.3%로 증가하였다. 1단계에서 부양부담, 사회적 지지 자원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2단계에서 정보적 지지와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부담을 경험하여도 정보적 지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beta=.45, p<.001$ ) 생활만족도의 감소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보적지지 자원이 완충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중 정보적 지지 자원은 부양부담을 지각한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완충효과를 나타냈다. 즉, 가족부양자의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지각한 가족부양자일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하지만 정보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의 감소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가운데 정보적지지가 특히 그러한 효과를 갖는 것을 구별해 낸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노인을 가족내에서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사회적지지 자원,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를 밝혀낸 실증적인 연구로서 본 연구의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들의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 재가서비스 이용 가족부양자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보완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현재보다 확대하거나 주·야간보호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통한 가족부양자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보호 노인을 일정 시간 가정 내에서 돌보는 것은 가족부양자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가족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가족내 요보호 노인돌봄의 실태 및 가족부양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삶의 질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부양자의 삶의 질 향상이 바로 요보호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부양자의 욕구에 기초한 사회서비스제도 또한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족간병을 위한 휴직제도, 가족간호수당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기 정보적지지 자원의 사용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체계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족부양자에게 지속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인정(2003)과 Mittelman et al.(1995)은 부양자들에게 개별상담과 가족상담을 실시한 결과, 부양자들의 무력감 감소, 자신감 향상, 부양으로 인한 가족갈등의 해소, 가족의 응집력 강화 등을 통해 부양부담과 우울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만한 기관의 전문인력 부족과 주부

양자와 그들 가족의 참여 저조로 인해 이들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상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재가 방문요양기관 내에 전문 상담사의 배치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도 요청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가급여 이용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포함하여 재가급여 이용 가족부양자를 포함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 관련 요인의 규명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양적연구만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와 기타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심층면접에 의한 질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가급여 이용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적용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수들의 파악은 재가급여 이용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넷째, 가족부양자의 부양경험과 생활만족도 대한 중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각각의 시기별로 경험하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지지 자원, 그리고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생활만족도 관련 요인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장기요양노인 가족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만족도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영향요인의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고희정(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주 부양자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요소: 시설 입 소 여부에 따른 비교.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2)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2015 노인장기요양보 험통계연보.
- 3) 김명자 · 손서희(2005). 기혼자녀(아들, 딸)와 부 모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동. 대한가 정학회, 43(7), 37-51.
- 4) 김미경 · 박다혜 · 안옥희(2014). 노인 장기 요 양 보험 등급자의 간호요구에 따른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 한국융합학회논문지, 5(3), 7-16.
- 5) 김수영(2008). 뇌졸중 노인 주부양자의 우울 및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39, 145-174.
- 6) 김수영 · 김진선 · 윤현숙(2004). 치매노인을 돌 보는 주부양자의 우울 과 삶의 만족 예측 요인. 한국노년학, 24(2), 111-128.
- 7) 김승돈 · 김용환(2009).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 지연구, 45, 7-31.
- 8) 김양이(2000). 치매노인 주부양자를 위한 스트 레스 관리 훈련의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김영인(2008).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 감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김윤정 · 최혜경(1993). 치매노인의 장애기간 과 부양자의 대처 자원이 부양자의 부담 및 부 양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2), 63-83.
- 11) 김재우(2015).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 배태: 자 아연결망 다층분석의 활용. 한국사회학, 49(1), 43-76.
- 12) 김진선 · 이은현(2001). 치매노인과 부양자를 위한 휴식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고찰. 대한간 호학회지, 31(6), 1077-1087.
- 13) 김철주 · 홍성대(2007). OECD국가 노인장기 요양보호 체계 개혁방향-비공식적 장기요양보 호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제도화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5, 231-251.
- 14) 김해란(2011). 중국 가족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배진희(2004).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자녀와 이웃지원의 기능적 측면 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197-216.
- 16) 백용운 · 최수일(2010). 장기요양노인을 돌보 는 주부양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인복 지연구, 49, 215-239.
- 17) 선우덕 · 강은나 · 이윤경 · 김지미 · 최인덕 · 양찬미(2015). 노인돌봄(케어) 서비스의 제공 주체 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18) 성규탁(1991). 한국인의 부모부양을 위한 의지 와 관행에 관한 연구-노인의 비공식적 지원망 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1(2), 251-273.
- 19) 신미숙 · 김경신(2013). 정신장애인의 기능수 준과 주부양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 구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가족관계학회, 18(3), 91-112.
- 20) 엄태완(2007). 노인 자살관련 요인. 한국사회 복지학, 59(2), 355-379.
- 21) 윤경아(2017). 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부양부 담이 부양자의 성장과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1), 257-283.
- 22) 윤현숙 · 차홍봉 · 조양순(2000). 뇌졸중 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 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2), 137-153.
- 23) 이영자 · 김태현(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 레스와 우울감: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 심으로, 한국노년학, 19(3), 79-93.

- 24) 이익섭 · 윤경아(2001). 가족의 지지가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5, 315-340.
- 25) 이인정(2003). 뇌졸중 기능손상 노인의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3, 231-255.
- 26) 이창주(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전달 체계가 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재가 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매개변수로 해서.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7) 이행정 · 송라윤(1999). 노인대상자의 비전문간호제공자가 경험하는 소진예측요인. 한국간호과학회, 29(3), 585-595.
- 28) 이현주 · 이주원 · 이준영(2015). 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 연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26(1), 345-367.
- 29) 이해자(2006). 노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에 따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 변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0) 장혜경 · 홍승아 · 이상원 · 김영란 · 강은화 · 김고은(2006). 가족내 돌봄노동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31) 전해정 · 조규영(2011). 중 · 고령자의 부양자 역할로의 전이 경험, 사회적 유대, 우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6), 387-411.
- 32) 정경일(2014). 치매노인가족의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정경희 · 오영희 · 강은나 · 김재호 · 선우덕 · 오미애 · 이윤경 · 황남희 · 김경래 · 오신희 · 박보미 · 신현구 · 이금룡(2014). 2014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4) 정주영(2007). 치매 노인 주부양자의 부양에 관한 경험연구: 배우자 주부양자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전해정 · 김태현 · 이동숙(2000).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 20(2), 49-70.
- 36) 조규영(2011). 부양자 역할로의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7) 조주연(2015). 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스트레스원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8) 조추용(2004).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71-99.
- 39) 조해진(2002). 치매노인 부양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0) 주경복(2009). 치매노인 가족의 소진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1)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연구논총, 49, 233-258.
- 42) 한경혜 · 이서연(2009). 배우자 부양자의 부양동기, 사회적 지지와 부양 부담, 한국노년학, 29(2), 683-699.
- 43) 한숙정 · 이세윤 · 김지연 · 김홍수(2014). 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감 관련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노인간호학회지, 16(3), 242-254.
- 44) 홍숙자(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5) 통계청(2016). 고령자통계
- 46) Aneshensel, C. S. & Stone, J. D.(1982).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buffering model of social suppor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12), 1392-1396.
- 47) Caitlin K. Holley. M. A, and Benjamin T.(2009). The Impact of anticipatory grief on caregiver burden in dementia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 49(3), 388-396.
- 48) Cantor, M. H.(1983). Strain among caregivers: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23, 597-604.
- 49)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13(2), 99-125.
- 50) Cohen, S. & Wills, T.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51) Given, C. W., & Given, B. A.(1992). The caregiver reaction assessment for caregivers to persons with chronic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5, 1992, 271-283.
- 52) Haley, William E., West C. A. C. Wadley, V. G., Ford, G. R., White, F. A., Barrett, J. J., Harrell, L. E., and Roth, D. L(1995). Psychological, social, and health impact of caregiving: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dementia family caregivers and non caregivers. *Psychology and Aging*, 10, 540-552.
- 53) Mittelman, M. S., Harris, S. H., Schulman, E., Steinberg, G. (1995). A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 effect on depression in spouse-caregivers of AD patients, *The Gerontologist*, 35(6), 792-807.
- 54) Moen, P.(1995). Gender, age, and the life course. R. H. Binstock, & L. K.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London: Academic Press.
- 55) Novak, M. & Guest, C.(1989). Application of a multidimensional caregiver burden inventory, *The Gerontologist*, 29(6), 798-803.
- 56) Papastavrou, E., Tsangari, H., Karayiannis, G., Papacostas, S., Efstathiou, G.,& Sourtzi, P.(2011). Caring and Coping: The Dementia Caregivers. *Aging & Mental Health*, 15(6), 702-711.
- 57) Pearlin, L., Mullan, J., Semple, S., & Skaff, M.(1990). Caregiving and the Stress Proces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Measures. *The Gerontologist*, 30(5), 583-594.
- 58) Pinquart, M., & Sorensen, S.(2003). Associations of stressors and uplifts of caregiving with caregiver burden and depressive mood: A meta-analysi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8 (2), 112-128.
- 59) Schulz, R., & Williamson, G. M.(1991). A 2-year longitudinal study of depression among Alzheimer's Caregivers. *Psychology and Aging*, 6, 569-579.
- 60) Stuckey, J. C., Neundorfer, M. M., & Smyth, K. A.(1996). Burden and well-being: The same coin or related currency?, *The Gerontologist*, 36(5), 686-693.
- 61) Toseland, R. W., Rossiter, C. M., & Labrecque, M. S. (1989). The effectiveness of peer-led and professionally led groups to support family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29, 465-471.
- 62) Tsutsui, T., Muramatsu, N., & Higashino, S.(2014). Changes in Perceived Filial Obligation Norms Among Coresident Family Caregivers in Japan. *The Gerontologist*, 54(5), 797-807.
- 63) Zarit, S. H., Todd, P., & Zarit, J(1986). Subjective burden of husband and wives as caregivers: a longitudinal study”, *The Gerontologist*, 26, 260-266.
- 투 고 일 : 2017년 5월 31일
  - 심 사 일 : 2017년 7월 4일
  - 게재 확정일 : 2017년 8월 11일